

트럼프, 18조 中 수입품에 25%관세 부과

(160억 달러)

23일부터 279개 품목 대상
반도체·철도장비 등 광범위
2천억 달러 관세강화 검토도
中 '맞불' 태세... 무역전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중 연설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을 나열하며 "내가 미국 경제를 믿기지 않는, 새로운 경지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가운데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 추가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46일에 걸친 공개 의견 청취 및 검토 기간에 업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세부와 품목은 앞서 예고했던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다.

관세부와 대상은 그동안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이라고 지목해온 제품들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 전자, 플라스틱, 철도차량 등 철도 장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이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정부

가 '반도체 굴기(掘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이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으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반도체와 관련 제품 규모는 25억달러 상당이다.

미 LED 업체 크리는 미국 공장에서 발

광다이오드 칩을 만들어 중국 조립공장에 보내고 조립된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시장에 내놓는다. 결국 이 업체는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대중(對中) 관세부과를 계기로 미-중 간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000억 달

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5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에 월가 흔들

한때 테슬라 주식거래 중단



일론 머스크

치려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없을 때 테슬라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세운 또다른 기업인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완벽한 예"라면서 이 회사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유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답글에서 상장폐지가 "큰 두통거리를 없애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투자자가 계속 테슬라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원하면 현 주가에 20%의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00억달러를 넘는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나온 테슬라의 상장폐지 검토 소식은 월스트리트에 던져진 폭탄이었다고 FT는 전했다. 테슬라 주식은 이날 오후 한동안 거래가 중단됐다가 폐장 15분 전부터 다시 거래돼 11% 오른 379.5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7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월가를 뒤흔들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서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47만원)에 비공개회사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확보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장폐지 계획은 "테슬라가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식이 하락하는데 베풀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테슬라가 증시 역사상 가장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실제로 시장 자료에 따르면 거래되는 테슬라 주식의 27%가 공매도 물량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 직원은 모두 주주이기도 한 상황인데 주가가 날뛰기하면 집중에 큰 방해를 받는다고도 했다.

그는 "모두가 일에 집중하고,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성취를 해



일본 찾은 유엔 총장 일본을 방문 중인 안토니우 구테흐스(왼쪽) 유엔 사무총장이 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인내를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북중관계 회복 '평양-中 선양 항공노선' 증편 트럼프 "북한 핵폐기 진전 있다"

북중관계 회복 속에 최근 북한 수도 평양과 중국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중심도시인 랴오닝성 선양을 오가는 항공노선이 임시 증편됐다.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냉각됐던 북중관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상반기 세차례 북중정상회담 이후 완전히 회복되면서 접경지역 중심으로 양국간 인적교류가 활성화하는 조짐으로 풀이된다.

8일 북중접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유일의 국제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중국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양국노선을 최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월요일 한차례 늘어난 평양-선양 노선은

전세편으로 항공 성수기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지만, 고려항공 측이 중국 노선을 확대·강화하려는 방침인 만큼 향후 정기편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항공노선 증편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외의 화별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한때 승객이 감소했던 평양-베이징간 국제열차가 최근 운행 편마다 만석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과 관련,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세계 인사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

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지만, 그들은 아직 그 일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국제참관인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조치로 보지 않는다고 "우리는 미사여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우리와 한국에 한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늦추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합뉴스

일본, 상반기 경상수지 109조원 흑자

일본의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10조 8411억엔(약 108조942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8일 발표했다.

월 기준으로는 지난 6월까지 4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재무성의 상반기 무역수지 현황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경상수지 가운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조8150억엔 흑자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2% 줄었다. /연합뉴스

수출은 7.2% 증가한 40조467억엔이었고, 수입은 8.3% 늘어난 38조2317억엔이었다. 수입 증가는 원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

재무성이 이날 함께 발표한 지난 6월 국제수지 현황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조 1756억엔 흑자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48개월 연속이다.

무역수지는 8205억엔 흑자였다. 수출은 9.3% 증가한 6조9752억엔, 수입은 4.9% 늘어난 6조1548억엔이었다. /연합뉴스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